



윤학자 공생재단

- 아동 보호와 한일 공생의 95년

오준_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전 유엔 대사

| 목차 |

1. 아동 인권의 역사
2. 공생원과 윤학자 공생재단
3. '세계 고아의 날' 추진
4. 맺음말

윤학자 공생재단

- 아동 보호와 한일 공생의 95년

오준_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전 유엔 대사

1. 아동 인권의 역사

인권(human rights)이 국제적인 의제로 부상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 유대인 대학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밀접하게 관계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창설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이하 유엔) 헌장의 3대 핵심 분야는 평화, 개발, 인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공유하며 유엔을 창설하였으니, 그 기본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엔 헌장에는 평화 이외에도 개발과 인권 역시 국제 사회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개발을 통한 기본적인 삶의 질, 인권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보장 없이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전쟁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뒤돌아보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유엔 창설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의 확산과 함께 커졌다.

아동 인권은 1919년 영국 여성 에글렌타인 쥘(Jebb)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창설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쥘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군사 봉쇄로 아동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모든 아동은 국적,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창설 이후 쥘 여사는 제네바로 활동 무대를 옮겨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작성하였다. 국제연맹은 1924년 이 선언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으로 채택하였다. 유엔은 35년 후 이 선언을 확대 발전시킨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는 후일 「아동권리협약」의 모체가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켄
(CC BY 4.0 Jeff Fountain)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법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현존하는 9개의 유엔 인권협약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¹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것을 권리의 주체로 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아동의 4대 권리를 확립하여 오늘날 아동 인권과 복지를 위한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아동 권리의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0년에는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렸고, 1996년과 2001년에는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를 반대하는 세계회의가 스웨덴과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40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² 그 밖에도 유엔 산하 기구로서 1946년 유니세프(UNICEF)가 국제 아동긴급구호기금으로 창설되었고, WHO, UNESCO, UNDP, UNHCR 등이 아동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 사회적 발전 단계가 낮아서 충분한 교육 및 의료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면 실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엔이나 OECD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협력에서도 개도국의 아동 관련 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아동의 80% 이상이 개도국에 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원은 보편적 아동 권리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도 4번 목표(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는 물론이고, 범 분야(cross-cutting) 과제로 아동 권리 실현이 반영되어 있다.

1 2023년 현재, 196개 당사국이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숫자인 193개국보다 많은데, 유엔 비회원국인 쿡 아일랜드, 니우에, 팔레스타인, 교황청이 가입하였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아동 대표단의 유엔 아동 특별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최 아동 특별총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2. 공생원과 윤학자 공생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잼은 1928년 제네바의 한 요양원에서 향년 52세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지구 반대편, 일제강점기 한반도 남쪽 목포에서는 19세의 전도사 윤치호가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을 열었다. 자신이 돌보던 고아 일곱 명을 위한 아주 작은 아동 복지 시설이었다.

윤치호는 1909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빈농 집안 출신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4세에 소년 가장이 된 그는 1924년 미국인 선교사 줄리아 마틴(Julia Martin)의 도움으로 서울 피어선성경학원(현 평택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³ 목포로 내려온 윤치호는 전라남도 최초의 개척교회인 양동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목수 일을 배워 ‘나사렛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거리의 고아를 돌보았다.

그러던 중, 1936년 공생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일본 관리의 딸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공생원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인 1938년 목포공회당(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의 성을 따라 윤학자라고 이름을 바꾼 치즈코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부부는 네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도 공생원 원생과 같은 음식을 먹고 한 곳에 재우며 차별 없이 대했다.⁴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공생원은 위기에 처하였다. 일본인을 아내로 둔 기독교인이자 이승만 정권 아래 구장(區長)을 맡은 바 있는 윤치호는 1950년 7월 인민군이 목포에 진입하자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 인민군은 주민의 항변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윤치호를 인민위원장직에 임명하고 공생원에 사무실까지 설치했다. 그해 9월 인민군이 후퇴한 뒤 목포에 들어온 국군은 윤치호를 부역자로 보고 조사하였다. 다행히 이때도 윤치호의 됃됨이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구명 운동을 펼쳐 풀려날 수 있었다.



윤치호, 윤학자 가족 사진(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소장)

3 줄리아 마틴(1869~1944, 한국명 마율리)은 1908년부터 1940년까지 32년간 목포 정명여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전남 지역의 기독교 선교와 빈민 구호 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4 윤학자 여사의 장남 윤기는 “나는 늘 어머니의 따사로운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내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있어도 다른 원아와 구별해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특별히 애정을 보여 준 기억이 없다.”라고 회고하였다.(윤기, 『어머니는 바보야』, 흥성사, 67쪽)

그러나 윤치호는 국군의 조사에서 풀려난 직후인 1951년, 500여 명에 달하는 공생원 원생의 식량을 구하러 광주로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윤학자는 남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윤치호의 실종을 두고 납북설, 처형설 등 갖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실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윤치호의 실종 이후 공생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전쟁으로 원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일본 국적의 윤학자가 공생원 대표가 되자 관청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겼으며, 민간의 지원도 받기가 어려웠다. 1952년 공생원은 사회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으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로지 자급자족만이 살길인 현실에서 윤학자는 직접 손수레를 끌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내다 팔았다. 원생들이 직접 자급자족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윤치호와 윤학자의 장남 윤기는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빈곤과 혼란의 와중에도 학교 문을 닫지는 않았다. ... 전쟁고아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을 헤아리고 공생원 식구는 다시 300명으로 불어났다. 먹고살 길이 막연했으므로 의논 끝에 선생님과 형들은 매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 윤기, 『어머니는 바보야』, 55쪽.



공생원 원생들(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소장)

한국전쟁이 끝나고, 윤학자와 공생원 구성원은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더 성장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윤학자는 목포는 물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고아들의 어머니로 인정받았다.



윤학자와 공생원 아이들(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소장)

윤학자는 1963년 8.15 광복절에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그리고 한일 양국 국

교가 정상화되기 전 일본 국적을 가진 민간인에게 수여된 최초의 서훈이었다. 이를 계기로 목포 공생원과 윤학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국내외에 알려졌다. 1964년 일본에서는 윤학자 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65년에는 목포 개항기념일을 맞아 ‘제1회 목포시민의 상’도 수상하였다.

그러던 때 윤학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젊었을 때 폐렴을 앓고 폐종양 수술을 받았던 그녀는 1967년 5월 일본 오사카의 아동복지시설 박애사(博愛社)와의 자매결연에 참석한 후 지병으로 쓰러졌다. 병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윤학자는 한사코 목포행을 고집했다. 1968년 10월, 공생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쉰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날 별세하였다.⁵

평생 3천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 윤학자의 장례는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3만여 명이 모여 슬픔을 나누었다. 공생원생 대표 이재식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다.

어머니! 언어와 풍속이 다른 이 땅을 무엇 하러 찾아오셨습니까? 40여 년의 일제 치하에서 배가 고파 울부짖는 고아들을 모아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수 밥을 얻어다가 먹여 주셨습니다.

윤학자 사후 장남 윤기가 공생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역시 초기에는 300여 명의 원생과 어려운 재정 상황을 떠맡아 난관을 겪었으나, 공생원은 계속해서 성장하였다. 1977년 공생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포 이외의 곳으로도 활동 무대를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공생재활원을

5 윤기 회장은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너무 지쳐 56세로 쓰러져 병상에서 제게 한 말은 ‘우메보시(매실로 만든 일본 음식)가 먹고 싶다’는 일본말이었습니다. … 언론은 ‘그날 목포는 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크리스천투데이』 2019년 8월 30일 자)

시작하였다. 1994년 윤학자의 일대기가 한일 합작 영화 「사랑의 목시록」으로 제작되었으며,⁶ 1997년에는 일본 고치현에 윤학자 기념비가 세워졌다.

윤기 회장은 어머니에 이어 2007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2012년에는 윤학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학자·윤치호 기념관이 공생원에 설치되었다. 오늘날 공생재단은 ‘사랑과 생명 존중의 복지공동체를 통한 모두가 행복하게 공생하는 사회’라는 목표하에 보육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재활원, 직업훈련학교 등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10월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윤학자 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사랑의 목시록」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소장)

윤학자 여사 일대기

- 1912년 일본 고치현 고치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남
- 1919년 윤학자 일가 한국으로 이주
- 1929년 목포공립고등여학교(현 목포여자중학교 전신) 졸업
- 1936년 공생원 근무 시작
- 1938년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
- 1951년 윤치호 행방불명
- 196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 수여
- 1968년 별세

3. ‘세계 고아의 날’ 추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고아는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를 뜻한다. 그러나 유엔과 유니세

6 김수용이 감독을 맡아 90% 이상 목포에서 촬영한 한일 합작 영화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영화 수입이 불가능해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하였고,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 이후 상영되었다.

프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망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고아로 정의한다. 1990년대 에이즈가 확산하여 수백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한 부모 또는 양 부모를 잃고 성장하는 아이의 수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자 이처럼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억 5천만 명의 고아가 있으며, 매일 1만 명 정도가 고아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아이들은 전쟁, 기아, 실항, 질병 또는 빈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아가 되었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고아는 친척, 이웃, 지역 사회, 또는 종교 기관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았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고아 숫자는 더 늘어났고, 유럽에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같은 대유행병이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으로 부모를 잃는 아이도 늘어나고 있다.⁷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고아를 더 포괄적인 개념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을 포기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은 고아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정치적(전쟁, 난민 발생 등), 경제적(빈곤, 이주 배경 등), 사회적(재난, 가정폭력, 청소년 임신, 성적 착취 등) 요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고, 우선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되도록 가족적인 환경의 ‘대안 보호(alternative car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하다.⁸ 유엔은 201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아동의 대안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으로 도와야 하지만, ‘만일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때는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안보호를 받도록 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⁹

7 우크라이나 사회복지청 통계에 의하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1,500명의 고아가 발생하였다.(AP통신 2023년 5월 26일 자)

8 2021년 9월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아 증대와 관련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오면, 취약한 아동은 사망,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부적절한 대안 보호를 받게 될 위험도 커진다(As with all crises and health pandemics,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are at increased risk of losing parental care - due to death, severe illness or financial hardship. This in turn increases their risk of being placed in unsuitable alternative care).”

9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 2010년 2월 24일, 「아동의 대안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항.

윤학자 공생재단은 2006년 이후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에는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엔 인권선언 70주년과 공생원 9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회의에서 윤기 회장은 “세상 모든 외로운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세계 고아의 날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라면서, “더는 고아를 만들지 말자는 전쟁 예방 평화 운동이자, 전 세계 사람이 고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옹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만 약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다.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 세계 제일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있었다.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4. 맺음말

윤학자와 공생원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가 살아남고 보호받고 교육받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공통된 과제임을 일깨워 준다. 아동 인권을 처음 주장한 에글렌타인 쥘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건 없건, 국적, 인종, 성별,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서 시작하여 1989년 「아동권리협약」으로 구현된 아동의 생존, 보호, 개발, 참여의 권리는 가장 취약한 아동도 인간의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였다.

윤학자 공생재단이 96년간 걸어온 길은 아동 보호가 무한한 사랑과 의지로 실현 가능함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 앞에서 입증하였다. 그런 취지를 다시 살려 ‘세계 고아의 날’의 제정에 한국과 일본이 앞장선다면, 국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 세계 모든 아이에게, 누구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오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과거 외교관으로서 주 유엔대사, 71대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학사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석사를 받았고, 저서에는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2015)가 있다.

| 참고문헌 |

- 윤기, 2006, 『어머니는 바보야』, 홍성사.
- 정경진, 2016, 『푸른 바다의 수선화: 윤학자 여사』, 전남여성플라자.
- 에글렌타인 잭 어록집, 2018,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United Nation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United Nations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4/142, 2010.2.24.
-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제60호**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 제61호**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

제62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제63호 중국 청사 편수(淸史編修)의 최근 상황